

WEEKLY HOT BOOKS



〈십 대를 위한 문학 속 세계사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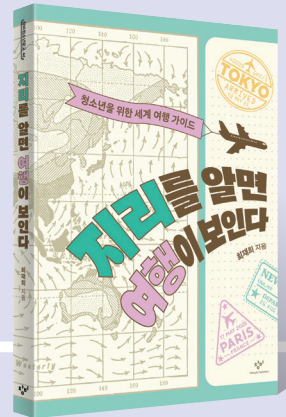
지은이 송영심
펴낸곳 팜파스

문학을 깊게, 세계사를 쉽게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읽으려면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 또 역사 공부는 단순한 사실 암기보다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문학과 세계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청소년 교양서로, 역사 교사 출신 지은이가 세계 문학 작품을 엄선해 고대·중세·근대·현대의 세계사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실제 역사였던 고대 트로이 전쟁을 담은 〈일리아스〉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의 독재 정치를 비판한 조지 오웰의 명작 〈동물농장〉까지, 13편의 문학 작품을 통해 세계사의 전체 흐름을 익힐 수 있다. 고전 명작으로 꼽히는 단테의 〈신곡〉으로 가톨릭교가 지배한 중세 시대를 들여다보고,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로 영국의 산업혁명기 놓인 도시화와 아동 노동, 사회 복지 등 근대 세계사를 훑는다.

각 작품을 소개할 때마다 시대의 특징을 먼저 알려줘 배경지식을 갖추 수 있고, 본격적인 작품 분석이 끝나면 각 책과 관련된 역사 상식을 정리해 이해하기 쉬운 역사 공부로 이끈다. 인문 독서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소년과 세계사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추천한다.



〈지리를 알면 여행이 보인다〉

지은이 최재희
펴낸곳 창비

여행을 즐겁게, 〈여행지리〉를 재밌게

고등학교 사회 교과 융합선택 과목 중 하나인 〈여행지리〉는 여행과 지리학을 엮어 배우는 과목이다. 현직 지리 교사가 쓴 이 책은 여행 지리의 관점에서 세계 곳곳의 여행지를 바라보는 여행 안내서이자 〈여행지리〉 수업의 연장선이다. 지은이는 공항에서 출발해 미국 인도 태국 브라질 뉴질랜드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 12개 나라의 주요 도시를 생생하게 다룬다. 대도시, 문화 경관, 자연 경관, 여행자의 올바른 태도를 일깨우는 곳으로 주제를 나눠 사려 깊은 해설을 보탰다. 책 곳곳에는 독자의 간접 여행을 돕기 위해 세계 여행지의 실제 사진과 여행 경로, 지형, 모식도 등 시각 자료를 풍부하게 실었다. 각 장의 마지막에는 '여행자를 위한 지리 상식' 코너를 마련해 각 나라와 도시의 지리적 특징을 설명하고 깊이 있는 지식을 알려준다. 이어지는 '지식 정거장' 코너에서는 여행지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나 상식을 소개해 교양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겨울방학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과 여행을 통해 건문을 넓히고 영감을 얻고자 하는 독자에게 추천한다. 〈여행지리〉와 연계된 학습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